

GS칼텍스, 최대 감압증류탑 설치

여수 제2 중질유 분해시설에 총 높이 79.5m로 ... 하루 15만배럴 처리

GS칼텍스가 전남 여수 제2중질유분해시설(No.2 HOU)에 세계 최대규모의 감압증류탑(VDU Column)을 설치한다.

GS칼텍스에 따르면,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제1공구에 건설중인 제2중질유 분해시설 사업 현장에 하루 15만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감압증류탑이 들어선다.

감압증류탑은 벙커C나 아스팔트유 등 중질유 압력을 낮춰 증류하는 설비로 높이 65.53m, 직경 15.24m, 총중량 1351톤의 세계 최대규모이며 기초 구조물(24.7m)까지 포함하면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총 79.5m에 달한다.

GS칼텍스는 세계 기네스협회에 감압증류탑의 등재를 요청할 계획이다.

감압탑은 내부 감압도(減壓度)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진공상태에 가까운 수준에서 증류가 이루어, 증류 후 6개 제품을 추출해 내도록 설계돼 있다.

탑 설치작업에는 최대 인양능력 1800톤의 타워 리프트 시스템과 750톤의 크레인이 동원된다.

한편, 2005년 2월 착공한 제2중질유분해시설은 2007년 말 완공 목표로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약 13만평 부지에 감압증류, 수첨탈황 분해공정, 윤활기유 생산공정, 황 회수공정 설비 등이 들어서게 된다.

GS칼텍스 김형순 상무는 “현재 추진중인 제2중질유분해시설은 경질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값싼 중질유를 원료로 등유, 경유 등 고부가가치의 경질유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”며 “2007년 말 상업가동을 목표로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2/18>